

농암 이현보(龔巖 李賢輔)의 「분어행(盆魚行)」에 나타난 출처관과 이후 조선 유학 속 선비 표상의 형성*

이원진**

1. 서론: 어항과 바둑판에 나타난 출처의 미학
2. 농암에게서 어항과 바둑판의 상징적 의미
3. 대조범으로 명확해진 분개의 성숙 공간
4. 염퇴 공부의 사표: 농암 '선생'이 되다.
5. 선의 구획과 선의 넘나들: 한국적 선비의 역동성
6. 결론: 항세기와 난세기의 선비정신

■ 국문요약

퇴계는 농암을 '선생'이라 부르고 행장을 지었다. 농암이 '리(理)에 대한 사모'를 중심으로 도통을 확립했다고 본 것이다. 농암은 퇴로의 미학을 실천한 도연명과 양소를 모델로 삼아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전시켜 조선 유학자들에게 염퇴의 길, 즉 염퇴지사(恬退之士)로서의 모습을 제시했다. 오구라 기조는 저서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에서 조선의 지식인은 양반, 사대부, 선비라는 세 가지 이미지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야당인 사대부는 집권한 양반의 도덕성을 공격한다. 이 공격이 성공하면 양반이 타도되고 사대부가 중심세력이 된다. 그러나 곧 사대부도 귀족화, 보수화, 양반화되며 공격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유교 정치의 순환은 역동적이며, 이러한 혼란 속에서 선비는 항상

* 본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20S1A5B5A16082805)을 받아 X-미디어 센터,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ICONS)에서 수행된 연구임.

**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 연구교수 / E-mail: jealivre@gmail.com

핵심 권력 외부에 남아 두 집단을 모두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유학자의 이미지 속에서 농암이 독창적으로 만들어 낸 만든 세 번째 백터는 이 순환 밖에서 작동하는 하강하는 선비의 모습이며, 이는 선비의 활로를 만들어 낸다. 이런 개혁에 대해 퇴계는 '선생'이라는 칭호를 붙여 존경하였다. 1498년부터 1545년까지 발생한 4대 사화 모두에서 살아남은 농암 이현보는 수많은 사람이 처형당하는 잔혹한 투쟁 속에서도 리(理)를 견지하고 강화했다.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리(理)'는 더욱 빛났다. 사람이 숙청을 견디며 박해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유교적 리의 원리를 발전시키고 옹호했던 모습은 농암이 표상한 염퇴지사(鹽退之師)의 정신에 힘입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농암이 말년에 퇴계에게 주었던 시 「분어행(盆魚行)」에 드러난 선비의 표상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조선사에서 사람이 박해를 피해 지켜낸 도덕은 '리'를 향한 하강, 아니 오히려 상승하는 하강이었다. 촘촘한 그물에 갇히지 않고 강호의 넓은 세계를 겨냥한 선비의 모습이었다.

주제어: 농암 이현보(龔巖 李賢輔), 「분어행(盆魚行)」, 선비(士, seonbi), 강호(江湖), 염퇴지사(恬退之師), 리(理)를 향한 하강

1. 서론: 어항과 바둑판에 나타난 출처의 미학

오구라 기조는 그의 책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에서 조선의 지식인에 세 개의 이미지 그룹이 있었음을 주장했다.¹⁾ 양반과 사대부, 그리고

1) 사(士)론에 관해서는 주지하다시피 오구라 기조 전에도 수많은 선행연구와 개념적 정의가 정착돼 있는 것이 사실이나 본고는 권력과 재물로부터 벗어난 선비의 입장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기조의 설을 채택했음을 밝힌다. 사론에 관한 가장 전통적 이론으로는 위잉스(余英時)의 중국 고전지식인 논의를 꼽을 수 있다. 중국 역사상 '士'의 전통은 계속 변천해 왔으나, 대체로 先秦시기에는 游士, 秦漢시기 이후에는 士大夫로 불려졌다. 余英時, 『士與中國文化』, 上海人民出版社, 1987; 余英時 等著, 『中國歷史轉型時期的知識分子』, 聯經出版事業公司, 1992 참조.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1959년부터 지방향리층을 부르는 말로서 양반을 대신해 '사대부'를 유통시키고 사대부 계층분화 양상에 대해 주목했던 이우성의 논의 또 재지양반의 중요한 특

선비의 구분이 그것이다. 조선시대에 양반은 부와 권력 그리고 도덕을 다 갖춘 집단이었고, 사대부는 권력과 도덕만을, 그리고 선비는 부와 권력은 없이 오로지 도덕만을 갖추고 있는 집단을 상징했다. 이상주의적이면서도 강한 현실감각을 지닌, 조선 역사에서 사림이나 신진사류 등이 전형적인 사대부의 이미지다. 반면 선비는 때 묻은 권력이나 부에 의해 몸을 더럽히지 않아, 흠집이 없다. 외국인 학자인 이만열은 『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보물』에서 “작은 이익에 매몰된 이전투구가 아니라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경지를 정치에서 실현하려는 이상주의자들의 노력”인 한국의 선비 정신(Seonbi Spirit)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한국의 보물이라고 극찬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선비(士)는 같은 동아시아임에도 권력을 장착한 중국의 선비나 무사도가 떠오르는 일본의 선비와도 다르다. 학식과 예절로 명분과 의리를 지키고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추구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개와 불요불굴(不撓不屈)의 정신력의 상징인 ‘선비’라는 표상은 언제 어디서부터 형성된 것이며, 그 기원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의 분석처럼 선비는 사대부와 양반과 구별되는 부와 권력으로부터 물러나 있는 조건을 지니고 있다. 선비가 보물처럼 빛나는 것은 그가 부와 권력으로부터 스스로 물러나기를 결심, 즉 염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고는 이 선비정신의 정수를 조선에서 유일하게 성대하게 은퇴식을 했던 농암, 그로 인해 퇴계로부터 ‘선생’ 칭호를 받았던 농암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징을 지적한 미야지마 히로시의 양반론 등에 주목할 수 있다. 이우성을 이은 이기백은 지배세력의 교체가 한국 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프레임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인호, 「고려말 사대부 개념의 역사성과 정치적 분화에 대한 논의」, 『韓國思想史學』 64, 2020 참고. 조선 선비의 여러 양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논의는 후속 연구에서 지속하고자 한다.

#1. 농암 이현보(龔巖 李賢輔: 1467~1555)는 70세가 넘어 부친이 돌아가시자 기회가 주어지면 관직을 사퇴하고자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렸다. 마침내 76세가 되어서야 ‘귀거래(歸去來)’를 외치며 왕과 친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결연히 관직에서 물러났다. 한양에서의 벼슬살이는 의미가 없었고 고향 분강촌에서 자연을 벗삼는 즐거움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다. 대표작 「어부가」도 은퇴한 이후 고향에 은거하면서 지은 것이다. 한강변 제천정에서 벌어진 송별연에 조정의 고관대작들이 모두 참석해서 송별시를 건네주었다. 한강에서 배를 타고 고향으로 떠났는데, 그때 배 안에는 화분(盆) 몇 개와 바둑판 하나뿐이었다. 낙향한 그에게 임금이 여러 차례 벼슬과 선물을 내리며 다시 올라올 것을 권했으나 벼슬을 매번 사양했고, 하사받은 책과 선물도 친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농암은 벼슬 욕심은 물론이고 재물에 대한 탐도 있지 않았다.

#2. 퇴계는 49세부터 70세까지 총 53회의 사직서를 제출한다. 이는 한계에 부딪친 당시의 사회 질서를 바로잡으며 성리학이 추구한 차원 높은 의리정신, 명분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나름의 방도였다. 퇴계가 국왕에게 올린 소(疏), 차(劄), 계(戒) 등을 보면 전체 44회 중 36회(81%)가 임금이 불러올리는 데 대한 사면의 내용이다. 그는 “옛날에는 치사(致仕: 벼슬을 그만함)하는 예가 있었는데 염치를 숭상하고 절의를 면려하는 수단이었다. 송나라 때는 아직 치사할 나이가 되기 전에도 염퇴(恬退)하는 것을 허락해 그 뜻을 이루도록 해 줬으니, 선비를 대우하는 도리가 예절이 있었다. 후세에는 이런 길이 꼭 막혀 한번 공명의 굴레 속으로 얽혀 들어가면 다시는 허락을 받아 물러날 기회가 없으니 정말 한탄스러운 일이다”²⁾하고 안타까워했다.

2) “嘗謂學者曰古有致仕之禮，所以崇廉恥勵節義也，至於宋時，雖不及致仕之年，亦許恬

위의 두 장면은 시대가 다르고 인물도 다르지만 비슷한 분위기를 낸다. 이는 조선시대 선비의 대표적인 표상으로 비춰진다. 왜 그럴까? 이 글에서는 그 이유를 찾으며 하는데, 바둑판과 물고기를 담은 항아리(어항)라는 비유에 빗대, 환유법으로 그 까닭을 풀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시 2편이 있다.

농암은 1542년 7월 17일, 조선에서는 이례적으로 은퇴식을 하게 되는데, 이 무렵 온계(이해, 李滄)와 퇴계 형제에게 「분어행(盆魚行)」이라는 시를 지어주며 정계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³⁾ 이 시는 선비를 어항 속의 물고기에 비유한 특이한 형식으로, 당시 사회의 비극을 예견하고 있다. 62개 행으로 이뤄진 이 시는 재밌는 형식을 띠고 있다. 주인공인 어린 물고기와 백발의 옹을 자처한 화자가 등장하는데, 옹이 먼저 물고기를 안쓰러워하자(26행), 물고기가 지혜를 담아 도리어 사람을 희화화하며 대답하고(38행), 다시 옹이 깜짝 놀라며 대답하는(62행) 문답식의 구조를 띠고 있다. 물고기는 의인화돼서 인간사를 풍자하는데, 여기서 물고기와 옹이 함께 꾸는 꿈, 작은 물에서 벗어나 큰 물 즉 강호로 회귀하고자 하는 염원이 진솔하게 그려지고 있다. 이 시는 농암이 강호가도(江湖歌道)의 탄생지인 임강사에서 강호문학을 본격 창시하기 직전 지어졌으며 강호가도에 대한 일종의 서시(序詩) 격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시를 받은 퇴계는 곧 이어 같은 형식의 62행 「분어행 차운시」를 지어 화답한다. 이 두 시는 나란히 『농암집』에 실려 있다.

退, 以守其志, 其待士之道, 可謂有禮矣, 後世此路榛塞, 一入名韁, 更無許退之期, 可勝歎哉(金誠一). 「出處」. 『退溪先生言行錄』卷3 類編, 퇴계학연구원, 2007, 154쪽.

3) 분어행은 어항속의 물고기를 옹은 시라는 뜻이다. 송나라 정명도가 분지에다 송사리 몇 마리를 키우면서 때때로 관찰했는데, 어떤 이가 그 까닭을 묻자 “만물이 자득하는 뜻을 보려고 한다(欲觀萬物自得意)”라고 대답한 데서 온 말이다. 『宋元學案』卷14, 「明道學案下」附錄, 『聶巖集』, 이현보 지음, 장재호·김우동 옮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번역총서, 한국국학진흥원, 2019, 124쪽에서 재인용.

仲夏晷刻長	한여름 낮은 길기만 하고
恒陽又方熾	태양은 또 한창 이글거리네
我屋南山前	나의 집 남산 앞에 있으니
褫職閒無事	관직에서 물러나 한가롭네
門絕剝啄驚	문 두드려 찾는 이 없으니
塊坐困晝睡	우두커니 앉았다가 낮잠에 빠지네
童稚悶寂寥	아이들이 적막함이 답답하여
罩取魚兒至	그물로 작은 물고기 잡아왔는데
纖鱗四五箇	어린 물고기 네댓 마리가
喁噏憐憔悴	입만 오물오물 초췌하여 가련하네
斗水儲瓦盆	질그릇 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
放之而爲戲	풀어놓고 장난거리로 삼았네
始舍圍圉然	처음 놓아주자 비실거리더니
漸蘇如起醉	술에서 깨듯이 점점 살아나더니
俄然作隊行	이윽고 떼를 지어 다니며
交頭疑湊餌	머리 맞대고 먹이를 먹는 시늉을 하고
撥刺或欲飛	활기차게 뛰어오르기도 하고
盆中游自恣	어항 속에서 마음껏 헤엄치네
然非得其所	하지만 제 살 곳이 아니기에
爾生還可瘁	네 삶이 도리어 피폐하겠지
方此大旱餘	지금 한창 큰 가뭄 나머지
川澤皆枯匱	내와 못이 모두 다 말랐고
盆水朝夕渴	동이의 물도 아침저녁으로 마르니
糜爛安可避	썩어 문드러짐을 어찌 피하라
吮沫以爲恩	서로 돌봐주어 은혜로 여기지만
不思終委棄	마침내 버려짐을 생각하지 못하네(26-웅)
魚兒反笑余	작은 물고기 도리어 나를 비웃으며

4) 「盆魚行 錄奉李景明 瀧 昆季求和: 「분어행」 시를 지어 이경명(해) 형제에게 적어 보내 화답을 구하다, 『龔巖集』, 이현보 지음, 장재호·김우동 옮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번역총서, 한국국학진흥원, 2019, 124-127쪽.

對臆陳其志	속으로 뜻을 말하기를
吾觀世上人	내가 세상 사람을 살펴보니
宦海沈名利	벼슬살이의 명리에 빠져서
隨行而逐隊	줄을 따라 떼를 지어 다니며
添巧恩光被	은택 입기를 바라고 있지
靑雲鳳池裏	고관에 청운의 꿈 두고서
揚揚方得意	의기양양 그 뜻을 얻었지만
風波一夕起	하루저녁에 풍파가 일어나면
將身無處置	장차 제 몸 둘 곳이 없다네
姑息活軀命	구차하게 살아가는 목숨이야
人與物無異	사람과 만물이 다름이 없네(38-어)
而余聞其言	내가 그 말을 들으니
感歎心還悸	감탄하고 도리어 두려움이 일었네
冥頑無知物	저 어리석고 무지한 미물이
所言何有智	하는 말이 어찌나 지혜로운지
余居嶺之南	내 고향은 영남 땅인데
京師爲旅寄	서울의 나그네가 되었네
旣非爲祿仕	원래 가난 때문에 벼슬하지 않았고
亦無百口累	또한 많은 식구 딸린 것도 없는데
遷延將數年	그럭저럭 몇 년을 보내다 보니
光陰同隙駟	세월이 쏠살같이 흘러갔네
雖言恩未報	비록 은혜 갚지 못해서라지만
亦是貪爵位	이것도 벼슬자리 탐한 것이네
白髮走紅塵	백발로 흥진세상을 치달리니
寧不被譏刺	어찌 비웃음을 받지 않으랴
頃聞來使言	근래에 심부름꾼에게 들으니
菟裘營已旣	고향집 준비가 다 되었다 하니
往追已不及	지난 일이야 미칠 수 없지만
來者猶可企	이제 내 뜻대로 하길 기약하리
行將掛手板	이제 곧 수판을 걸어두고
亟把南轅轡	빨리 남쪽 수레고삐 잡으리
魚兒復魚兒	어린 고기여 어린 고기여

此言當籍記	이 말을 마땅히 기록해 두었다가
江湖浩萬里	아득한 만 리 강호로 돌아가면
永作相忘地	길이 서로 잊기로 하자꾸나(62-용)

盆魚行 次韻詩 분어행 차운시(退溪 李滉)⁵⁾

永陽李相公	영양의 이 상공께서는
壽福何昌熾	수와 복이 어찌 그리 성대하신가
風塵四十年	풍진 속에서 사십 년 세월 동안
雅懷耕釣事	쟁기질과 낚시질 생각했지요
尙來軒冕榮	혹 높은 관직의 영예라도
一枕邯鄲睡	한 바탕 한단몽으로 여기셨네
去就豈不裕	거취에 어찌 여유가 없겠는가
所樂非外至	즐긴 바는 외부에서 오는 것 아니었네
頃臥雀羅門	잠시 문에 새 그물 치고 놓더라도
寧同守窮悴	궁핍함을 지키는 것과 어찌 같으랴
埋盆作小池	항아리 묻어 작은 못 만들어
聊聽兒童戲	아이들의 장난 소리나 들어보고
袖手坐觀漁	팔짱끼고 앉아 물고기 구경하니
大勝邀客醉	손님 맞아 취하는 것보다 훨씬 낫네
憐渠小鱗筋	가련쿠나, 저 작은 물고기
未必貪芳餌	좋은 먹이 탐한 것은 아니나
數罟旣所嬰	촘촘한 그물에 이미 걸려들어
巨壑難爾恣	넓은 골짜기에서 맘대로 놀기 어렵네
誰云枯肆貿	건어물점에서 사왔다고 누가 말했나
免爲涸轍瘁	마른 바퀴자국에서 아위는 건 면했네
斗水活性命	한 말 물이면 목숨을 보전하니
恩波幸不匱	은택이 다행히 다하지 않았네
懶笑未足嫌	수달이 엇본다고 겁낼 것 없고

5) 退溪 李滉, 『盆魚行次韻』, 『聾巖集』, 이현보 지음, 장재호·김우동 옮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번역총서, 한국국학진흥원, 2019, 528~531쪽.

蟻制容可避
 時當旱澤渴
 吞舟猶爛棄
 況乃資瓶盆
 勤惰係人志
 江湖隔浩蕩
 微物夤害利
 潑潑如自樂
 茫茫洪造被
 寧知失所依
 遭烹會不意
 閱世固多感
 寓物情難置
 作詩憤所據
 人事較同異
 坐令乾沒子
 聳聽心亦悸
 因思故園樂
 山水兼仁智
 志欲卦冠去
 鷲巖娛晚寄
 煙蓑月一艇
 不博繫千駟
 顧惟高世士
 青紫不能累
 古來全節人
 未必皆辭位
 朝廷重老成
 後生胡妄刺
 睿眷力未替
 菟裘莫言旣
 我生實孤僻

개미의 침입도 피할 수 있었네
 가물어 못이 다 마른 때에
 큰 물고기도 오히려 문드러지는데
 한 항아리에 물을 대는 것이야
 게으르고 부지런한 사람의 뜻에 달렸네
 드넓은 강호에서 떨어졌기에
 미물도 이해에 걸리고 말았네
 활기차게 스스로 즐기는 듯하니
 하늘의 아득한 은택 입었네
 의지할 곳 없음을 어찌 알리오
 삶겨지는 것은 생각한 적 없다네
 세상을 겪으면서 감회 참으로 많아
 사물에 부친 정 그만 두기 어렵네
 시를 지음은 울분을 토로하는 것
 사람의 일은 같고 다름을 비교하네
 앉아서 건물을 명하는 사람이
 들으면 역시 마음이 오싹하리라
 이에 고향의 즐거움 생각하시니
 산과 물의 인과 지를 겸하셨네
 마음은 벼슬 버리고 떠나서
 농암에서 노년을 즐기고 싶으셨네
 안개 속 도롱이 입고 달 아래 뱃놀이
 사천 필의 녹봉과 바꾸지 않으시리라
 오직 세상의 고상한 선비라
 높은 벼슬이 유혹하지 못하였네
 예부터 지조를 온전히 한 사람도
 모두 관직을 사양한 것은 아니네
 조정에서 노성한 이를 중용하니
 후배들이 어찌 함부로 비난하랴
 성상의 돌보심이 변하지 않아
 토구가 이미 이루어졌다 말 못했네
 내 태어남 참으로 외롭고 궁벽하여

高山徒仰企	높은 산처럼 우러러보기만 하였네
驚蹠蹶通衢	노둔한 말이 대로에서 넘어질까 봐
天放卸銜轡	하늘이 재갈과 고삐 풀어주었네
深戒在盆魚	깊은 경계 분어행에 있으니
至誨當銘記	지극한 가르침 깊이 새겨야 하리
收身宦海波	환로의 물결 속에서 몸을 거두어
養拙幽閒地	그윽한 곳에서 즐렬함을 기르리라.

(1) 어항

두 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조그만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그 비유로 말하고자 하는 조선의 정국이다. 조그만 그물에 걸려 어항으로 들어온 물고기와 확장된 자연(강호) 속에서 자유로움을 즐겨야 하는 물고기를 비교하고, 그 물고기를 바라보는 어부의 세계를 확장함으로써, 만물일체의 세계관을 노래했다. 처음에는 좋은 먹이를 찾아 떼를 지어 작은 어항으로 들어온 어린 너댓 물고기와 곧 물이 말라버리면 버려질 것을 안쓰러워하는 늙은 화자와의 관계가 펼쳐지나, 곧 이 관계는 반전된다. 물고기는 미물이라 그렇다 할지라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 역시 하등 다름 바 없이, 더 좋은 먹잇감을 탐하다가 그물 속에 걸려버림은 똑같이 어리석음을 고발하고 있다. 몇 세기 후인 조선 후기 담헌 홍대용(1731-1783)이 『의산문답』에서 인간이 자신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물(物)로부터 배운다는 ‘자법어물(資法於物)’이라는 관점을 제시하는데⁶⁾, 여기서는 재밋게도, 이런 관점이 먼저 선취되고 있다. 인물성동론을 넘어, 물(物)에 대한 새로운 관점, 즉 상호부조적이며 오히려 인간보다 낫기에 인간이 차마 두려워하게 되는(경외하는) 측면을 보다 과감하게 말

6) 이원진(2021), 「두 사건에서 보는 지구적 전환: 우리는 어떤 지구를 상상할 것인가」, 『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 88, 392쪽.

하고 있는 것이다. 홍대용의 관점은 ‘성인은 만물을 스승삼아 배운다(聖人師萬物)’는 『관운자』에서 인용한 것이지만 여기서 농암의 시도도 일부 인간중심주의를 타파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농암은 이 ‘인물무분(人物無分)’의 재치있는 비유로 퇴계에게 당시 정국을 경고했으며, 퇴계는 농암의 「분어행」 시의 암시를 깊이 깨닫고 교훈을 새긴다. 이는 퇴계가 “선비가 한번 조정에 서게 되면 모두 낚시에 걸린 고기 꼴이 되는 것이다. 한번 공명의 굴레 속으로 얽혀 들어가면 다시는 물러날 기회가 없으니 한탄스럽도다”(『언행록』, 각주2 참고)고 한 말에서 찾을 수 있다. 퇴계가 농암이 준 「분어행」에 대하여 차운사에서 최종적으로 답한 것은 ‘양줄(養拙)’이었다. 농암과 퇴계가 함께 강호로 돌아와서 얻은 것은 ‘줄박(拙朴)’이었던 것이다. 벼슬을 구해 명리(名利)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아름다운 산천에서 심성을 수양하며 줄박을 기르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이 바로 퇴계가 농암에게 배운 것이었다. 퇴계는 후일 도산에 은거하는 뜻도 줄박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렇게 이 두 시에 담긴 담화는 이후 조선에서 하강의 미학을 풍류로 승화시키는 시초가 된다. 그래서 농암은 “이 말을 마땅히 기록해 두었다가(此言當籍記) 아득한 만 리 강호로 돌아가면(江湖浩萬里) 길이 서로 잊기로 하자꾸나(永作相忘地)”라고 했고, 퇴계는 이어 “지극한 가르침 마땅히 깊이 새기리(至誨當銘記) 환로의 물결 속에서 몸을 거두어(收身宦海波) 그윽한 곳에서 줄렬함을 기르리라(養拙幽閒地)” 다짐했다.

(2) 바둑관

퇴계는 「분어행」의 교훈을 처사 그리고 염퇴와 하강의 의미로 깊이 깨달은 후에 이를 마음에 새기고자 한다. 특히 조광조의 행장을 통해 다

시금 이 교훈을 깨치고자 하는데, 이때 바둑의 놀이를 언급한다. 농암이 마지막으로 고향에 내려올 때 가져왔던 물건이 바둑판이었음을 상기해 볼 때 재밌는 유사성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바둑판은 수를 두는 곳이다. 바둑에는 수많은 수가 있을 수 있다. 바둑은 전형적인 동양의 게임이지만 서양의 게임인 체스에 비교해서도 유독 경우의 수가 월등히 많아, 오늘날 인공지능 신경언어망의 모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알파고(AlphaGo)의 ‘고(Go, 碁)’는 바둑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둑의 수많은 경우의 수를 내다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그러나 바둑의 수가 그렇게 많다 해도 바둑을 두는 사람 특히 바둑천재 이세돌에게 물으면 그렇게 둔 이유를 “딱 그곳에 둘 수밖에 없는 수”라고 말한다. 화가 이우환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을 단 미술관 세 곳을 가진 화가 (일본 나오시마 이우환 갤러리, 프랑스 아를르, 한국 등)인데, 그는 거대한 화폭에 점을 찍을 때 “그곳 밖에는 다른 곳은 찍을 곳이 없다.”고 고백한다. 바둑 마니아인 이우환은 자신이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바로 바둑을 두는 원리와 정확히 같다고 얘기한다. 그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도 사는 법은 한 수뿐이다.⁷⁾ 그리고 수를 잘못 두면 되돌릴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퇴계가 보기에 1515년에 중용돼 불과 4년만에 기묘사화(1519)의 희생양이 된 조광조는 바둑의 수를 잘못 둔 것이었다. 조광조는 사림 등용의 시발점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또 너무 성급하게 개혁을 추진한 바람에 기묘사화에 빌미를 제공했다. 퇴계는 그런 조광조를 염두에 두며 박순(朴淳)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은 어찌 바둑두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까? 한 수만 헛놓으면 온 판을 그르치게 됩니다. 근세 사림의 화는 대부분 바둑을 헛놓는 것과 같은 데서 연유합니다. 조광조 등은 도를 배움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갑자기 큰 명성을 얻

7) 이어령 저(2022), 『너 어떻게 살래』, 파란북, 107~110쪽.

어 성급히 경세유민으로 자임함으로써, 성주가 그 명성을 좋아하고 그 책임을 두텁게 하였으니, 이는 수를 잘못 두어 실패를 자초한 원인입니다.” 이성원은 이 한 문단이야말로 퇴계가 평생동안 출처와 사수에 신중을 거듭하였던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진퇴관은 당시의 식자 층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⁸⁾

이성원은 퇴계가 조광조를 분석하면서 ‘경륜의 부족’이 ‘진퇴의 잘못’을 불렀고, 그 잘못의 근본원인은 ‘공부 부족’에 귀결한다고 분석한다. “물러나기를 구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고, 이것이 귀양으로 이어져 불행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퇴계는 이를 통해 ‘하늘의 뜻’을 절규하듯 물었고, 그의 평생에 걸친 끊임없는 ‘진이모퇴(進而謀退)’도 여기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덧붙인다. 정약용은 34세 때 우부승지에서 금정찰방(金井察訪)의 한직으로 몇 단계 좌천되었다. 어느 날 이웃에서 『퇴계집』을 얻어 매일 새벽 세수한 후 편지 한 통을 아껴 읽고 오전 내내 새벽에 읽은 편지를 음미했는데, 이 성찰의 기록이 다산의 『도산사숙록(陶山私淑錄)』이다. 특히 박순에게 보낸 서한 중 “공은 어찌 바둑 두는 것을 못 보았습니까? 한 수를 잘못 두면 온 판을 그르치게 됩니다.” 부분을 읽은 다산은 퇴계의 평생 출처가 이 한 문단에 다 들어있다고 이 글에 적었다. 과거에도 앞선 실패를 거울삼아 이렇듯 경계한 것을 보고 군자의 몸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배우게 된다고. 그는 퇴계의 편지 한 줄 한 줄을 자신의 실패를 반성하는 채찍과 정신을 일깨우는 죽비로 삼았다.

퇴계는 이렇게 후대에도 영향을 미친 정암 행장에서 조광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세 가지 오류’를 지적한다. “도학과 도학자를 위하는 길은

8) 이성원 저, 『퇴계에게 제자, 선생, 교육, 학교는 무엇인가?』,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2020, 67쪽; 『선생』, 학자원, 2024. 출간예정.

입언수후(立言垂後) 단 한 가지뿐⁹⁾이다. 그러나 지금 선생은 그렇지 못했다. 첫째 불행은 등용, 발탁이 너무 갑작스러웠고, 둘째 불행은 물러남을 구했으나 이루지 못했고, 셋째 불행은 귀양지에서 생애를 마친 일이다. 중년에 충분한 경륜을 쌓을 시간이 없었으니, 입언수후는 더욱 어려운 일이 되었다. 그렇다면 하늘이 이 사람에게 큰 책임을 내린 뜻은 결국 무엇이었던가?¹⁰⁾ 이어 퇴계는 『언행록』에서 다음과 같이 최종진술한다. “조광조는 타고난 자질이 아름다웠으나, 학문에 충실하지 못하여 그의 하는 일에 지나침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일을 실패하고 말았다.”¹¹⁾

이어 다음 장에서는 새와 물고기가 어항이나 그물망 같은 옹색한 산수가 아닌 진짜 산수를 찾아 떠났고, 결국 활발한 강호 자연의 은유를 통해 ‘성(聖)의 공간’을 창조한 농암의 시 세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많은 국문학자들이 분석하듯 강호가도의 문학은 고려 말 사대부들로부터 시작됐으나 농암을 기점으로 큰 변곡점을 그리게 된다. 이 특징은 동향 후배였던 퇴계가 농암이 개작한 「어부가」에 발문을 지으며 농암에 대해 내린 평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퇴계는 “바라보면 그 아름다움이

9) 세상에 썩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 그것을 「삼불후」(三不朽)라고 하는데, 『춘추 좌전』(春秋左傳)의 「양공」(襄公)에 나오는 말이다. 영원히 전해지는 그 「삼불후」는 바로 「입덕」(立德), 「입공」(立功), 「입언」(立言)의 세 가지다. 세상이나 국가·사회를 위하여 도덕을 세우는 것을 「입덕」(立德)이라 하고, 공을 세우는 것을 「입공」(立功)이라 하며, 말을 세우는 것을 「입언」(立言)이라 하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높고 위대한 것이 「입덕」이며, 그 다음 가는 것이 「입공」, 또 그 다음 가는 것이 「입언」이다. 그러므로 「불후」(不朽)라고 하면, 특히 「입덕」을 의미하지만, 「입공」·「입언」도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 그에 그치지 않고 그대로 「입덕」에 통하게 된다.

10) 『退溪集』卷48, 「靜庵趙先生行狀」, “所恃以爲斯道斯人地者 有立言垂後一段事爾 今先生則未然 一不幸而登擢太驟 再不幸而求退莫遂, 三不幸而謫日斯終 向之所謂積累飽飢於中晚者 皆有所不暇矣 其於立言垂後之事 又已無所逮及焉 則天之所以降大任於是人之意 終如何也.”

11) 『退溪先生言行錄』卷5, 「論人物」, 『한국유학사상사』 2권 217쪽에서 재인용.

신선과 같았으니, 아! 선생은 이미 강호의 진락을 얻었다”고 찬탄했다. 농암은 관료적 문학이 성행하던 당시 강호지락(江湖之樂)과 강호지미(江湖之美)라는 새로운 문학세계의 지평을 열며 저서 『농암문집(龔巖文集)』, 작품으로 「어부장가(漁父長歌)」, 「어부단가(漁父短歌)」, 「효빈가(效嘯歌)」, 「농암가(龔巖歌)」, 「생일가(生日歌)」 같은 굵직한 시가 8수를 남겼다. 그는 한국문학사에 강호문학의 창도자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퇴계의 「도산십이곡」, 이한진의 「속어부사」, 이형상의 「창보사」, 윤선도의 「어부사시사」가 뒤를 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문학사의 성취뿐 아니라 퇴로를 개척하여 새로운 선비 표상을 제시한 조선 유학사적 성취로도 평가받을 수 있다.

3. 대조로 명확해진 분개(分開)의 성속(聖俗) 공간

앞서 「분어행」으로 농암의 시 세계를 엿보았는데, 그 세계를 뒷받침한 농암 사상의 특징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번 장에서는 그의 문학 세계 속에서 나타난 공간의 상징성을 통해 농암이 견지했던 선비 정신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버는 千尋綠水 도라보니 萬疊靑山
 굽어보면 천길 파란 물, 돌아보니 겹겹 푸른 산
 十丈紅塵이 언매나 7렛는고,
 열 길 티끌 세상에 얼마나 가렸는가
 江湖애 月白호거든 더욱 無心호애라.
 강호에 달 밝아 오니 더욱 무심하여라

「어부단가(漁父短歌)」

위의 농암의 「어부단가(漁父短歌)」에서 티끌은 벼슬과 관련되고, 무심은 벼슬에 대한 무심을 의미한다. 열 길 티끌에 비해 백배 천배의 위력이 있는 게 녹수청산이다. 천백 배의 녹수청산이 열 길 홍진을 어찌 당하라. 이렇게 벼슬과 자연의 문제를 농암처럼 침예하게 맞부딪히게 만든 작가는 한국 시문학사에 일찍이 없었다.

江湖에 너름이 드니 草堂에 일이 업다.
 有信호 江波는 보내느니 浬람이다.
 이 몸이 서늘힘음도 亦君恩이샷다.

맹사성, 「강호사시가」

예를 들어 농암 이전에 강호를 노래했던 맹사성(1359-1438)도 「강호사시가」에서 농암처럼 자연에 묻혀 지내는 즐거움을 얘기했지만 ‘역군은(亦君恩)’이란 구절이 사계절 계속 반복되며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말하는 부분과 공존한다. 여기서는 농암처럼 분화된 두 세계의 선명성을 느낄 수 없다.

바로 이 부분이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이어지는 시기, 「강호사시가」의 저자 맹사성이나 「상춘곡」을 지은 정극인의 시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퇴계의 용어를 빌려 설명하자면, 맹사성 등 농암 전의 문학에선 성과 속의 공간이 혼륜(渾淪)돼 있다면 농암 이후에는 성과 속의 공간이 명확히 분개(分開)돼 있다고 볼 수 있다. 퇴계는 일찍이 성(性)에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구분이 있고, 정(情)에도 사단과 칠정의 구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구분을 여기서 다시 빌려서 설명해 보자면, 농암의 공간엔 리(理)적인 성의 공간과 기(氣)적인 속의 공간 상의 분개가 있다. 그 구분은 리기가 일몰이 아니라는 것(理氣不相雜)을 강조하기 위한 공

간개념적 구분이지만, 자칫 리기가 떨어져 분리된 것처럼(理氣不相離)처럼 생각하면 안 될 것이다. 농암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성(聖)의 공간에서 속(俗)의 공간으로의 끊임없는 확장성과 이동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듯하다. 성과 속의 공간의 오고감을 논했다는 이 점이 농암에게 도가적 요소가 많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농암이 도가와 구별되는 유가적 특징으로 귀결하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뿐 아니라 예를 들어 「어부가」에서는 시적 심상에서 물과 산, 아침 밀물과 저녁 밀물, 빠져나가다 들어오다 등 대조되는 낱말의 연결로 성과 속에 대한 대립적 내면세계가 드러난다.¹²⁾ 5연에서는 일다-날다, 서늘하다-한가하다. 푸르다-회다 이미지가 대립을 이루며 의미를 반복 강화한다. 제 1, 2행에서 만사/무심, 삼공/강산이 속/성과 동질적 범주다.

다만 「어부가」의 화자는 세속으로부터의 이탈과 세속으로의 귀환을 동시에 희망한다. 이렇게 농암의 문학세계는 단순히 자연에서 은거하는 것으로 끝나거나 풍파의 어려움을 얘기하지만은 않는다. 강호생활이 은사의 것 같으면서 사실 세상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 십장 홍진이 가려져 있는 저쪽 세계지만 그곳에 군주가 있고 백성이 있다. 그들을 저버리고 혼자만 한가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이민홍은 조선조 오백 년을 통해 선비들이 귀거래를 것처럼 요란하게 외쳤지만 진심으로 귀거래를 회구했던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말한다.¹³⁾ 그리고 그 가운데 농암과 퇴계가 포함돼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귀거래해 삶을 누릴 경제적 기반과 아름답고 매혹적 풍광이 갖춰진 성의 공간을 스스로 창조했기 때문이다. 특히 농암은 분

12) 송정숙, 「농암 어부가의 율격과 심상」, 『농암 이현보의 문학과 사상』, 안동문화연구소, 1992, 511쪽.

13) 이민홍, 「농암 시가의 이념과 미의식」, 『농암 이현보의 문학과 사상』, 안동문화연구소, 1992, 229쪽에서 인용.

천에 조각배를 띄우고 술을 싣고 시를 짓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 풍류의 선비였다. 유상곡수의 의미를 알았던 것이다. 그 성의 공간에서 이뤄진 성리학적 강호인식은 강호의 내외를 분리해 외경의 미보다 내경의 미, 즉 도체(道體)를 탐구할 여력을 갖추게 한다. 도체를 탐구한 이후에 내외가 합일된다. 위기지학을 먼저 이루고 위인지학을 이루는 순서와 같다. 내경의 미는 미라기보다 진과 선에 더 가깝다. 즉 인간 심성의 최고의 경지다. 강호자연에서 내경의 미는 거리두기 즉 분개를 통해 심안(心眼)을 얻은 자에게 확보된다. 다음 시를 보자.

龔巖에 올라 보니 老眼이 猶明이로다.

농암에 올라 보니 늙은이의 눈이 오히려 밝게 보이는
구나

人事이 變흔들 山川이 썩 가실가.

인간사가 변한다 한들 산천이야 변할 리 있을까?

巖前에 某水某丘이 어제 본 듯흐여라.

바위 앞의 저 물 저 언덕이 어제 본 듯 선하구나

「농암가(龔巖歌)」

「농암가(龔巖歌)」는 그 깊은 곳을 얻은 자의 풍경을 보여준다. 이 시에서 농암은 변치 않는 자연물을 환기함으로써 사람의 일이 변한 데 대한 실망을 내려놓는다. 중장에서는 실망의 원인이 ‘인사의 변화’임을 드러내고 대립적으로 ‘산천의 불변’을 강조했다. 늙은이의 약한 시력을 가지고서 오히려 명확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변하지 않는 산천이다. 늙은 뒤에 오히려 시력이 좋아졌다는 것은 심안으로 파악한 자연에 대한 찬탄이다. 퇴계는 농암을 신선이라고 칭했다. 세속과 거리두기를 통해 확보한 강호의 자연은 더 깊은 심성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성속의 구분이 본

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구분과 같다면 거경(居敬)과 존양(存養)은 바로 이 강호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호자연은 심성론과도 깊이 연관된다. 때문에 강호지락과 강호지미는 곧 심성의 즐거움과 미학이다. 바로 이 지점을 이민홍은 농암의 ‘성정미학’이라고 표현했다. 여기에는 금욕적 정서가 개입한다. 하나의 세계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의 세계를 버려야 하고, 개인적 수양은 쉽지 않은 자기억제와 긴장의 심미감을 학자들에게 요구한다. 절제된 수목화적 엄격성을 갖춘 강호다. 이는 농암이 추구한 극기적 긴장의 경지였다.¹⁴⁾ 성과 속의 이 두 세계는 그 성립상 모순돼 있다. 김홍규는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농암 이후로 강호자연과 정치현실은 서로를 용납하지 않는다. 두 세계의 모순은 화해될 수 없다.” 실제 농암 이후로 어부의 생활과 대립하는 세계에 대한 일련의 부정이 있다. 예컨대 “낙시대 한 가닥에 만사를 잊으며, 삼공을 주더라도 이 강산과 바꾸지 않는다. 일생의 자취가 창랑에 있다”는 구절이 그렇다. 만사무심, 심공, 창랑은 서로 밀고 당기면서 단 순히 액면적 의미가 아니라 배후 정치현실과의 상호 배제적 대립을 띠고 있다.¹⁵⁾ 이런 대립구도는 「효빈가」와 「농암가」, 「어부가」 등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16세기 상황에서 급진적 개혁 이념을 도전하다가 거듭 좌절을 겪은 사람의 세계관은 따라서 고려시대의 강호가도와는 달리 혐오스러운 관료생활로부터 물러나 금욕적 관조를 하려는 이분적 전망이 강하게 묻어 있다. 조광조의 급진적 정치이상의 좌절을 목격한 농암이나

14) 김홍규, 「강호자연과 정치현실」, 『농암 이현보의 문학과 사상』, 안동문화연구소, 1992, 177쪽에서 인용.

15) 김홍규, 「강호자연과 정치현실」, 『농암 이현보의 문학과 사상』, 안동문화연구소, 1992, 175쪽, 참고로 본고는 2024년 한국경학학회 춘계학술대회, '15~16세기 조선 경학의 향방과 전개: 퇴계 율곡 이전 조선 경학의 저변'에서 발표한 초고(2024.05.11)를 발전시킨 것이며, 당시 사회자와 토론자께서 저자의 새로운 강호론을 전개하기 전, 먼저 정설로 인정되는 김홍규의 강호자연의 이분 구도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퇴계는 다른 선택을 하고자 했다. 타락한 세속과 단절된 강호로 돌아와 숭고한 표준을 지키고 이를 더 선양하려 했다. 실제 농암 이후 조선에서 이 강호세계의 상은 더욱 견고해진다.¹⁶⁾

여기서 농암은 사대부의 이상에서 저절로 떨어져 버린 속과의 거리를 억지로 메꾸지 않는다. 도리어 스스로 거리를 창조하며 역발상을 시도한다. 조정에 기생하며 피어나는 피로한 관료가 아니라 적극적인 성의 하강적 공간을 개척하면서 상승만을 지향하는 속의 공간 역시 그물에서 건져낸다. 하지만 이 성속의 구별은 서로를 배척하기 위한 게 아니라 공존하며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유연성을 낳는다. 퇴계가 후에 『성학십도』 등에서 도상적으로 창조하고자 했던 경(敬)의 미학은 바로 이런 유연한 이동성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염퇴 공부의 사표: 농암 ‘선생’이 되다.

농암의 은퇴식이 워낙 성대하고 유명했기에, 퇴계는 많은 시를 지었고, 제목도 「이참판선생가귀(李參判先生假歸)」이라는 특이한 표현을 붙였다. ‘이참판’만도 극존칭인데 거기에 선생까지 추가했다. 삼전도 마지막 전별시 제목 「봉전이선생(奉錢李先生)」에서도 역시 거듭 선생이라고 적으며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전했다. 그 전별시 한 편에는 ‘후생後生’이라는 시어와 함께, ‘후생을 감동시켰다’고 덧붙였다.¹⁷⁾

16) 이원진, 「농암(龔巖)의 경천(敬天)사상: 聖俗間 거리두기를 위한 자연의 재발견」, 『동양철학연구』 109, 동양철학연구회, 2022, 26쪽.

17) 이성원, “농암의 정계은퇴 4. 지금 사람들은 이러한 은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도성 전별행차, 제천정전별연, 효빈가, 농암이선생행장”, 〈농암총택〉 홈페이지 (<http://bungang.nongam.com/coding1/sub1/sub3.asp?bseq=2&mode=view&cat=-1&aseq=6709&page=1&sk=&sv=>), “많은 관료들이 전별시를 지었는데, 승문원에 근무 중이던 퇴계는 농암이 서울을 떠나기 직전의 3일간의 일정을 합

上東門外候功成	상동문 밖에서 기다리는 공 이루었으니
祖帳如雲感後生	구름 같은 전별 자리에 후생이 감탄한다오.
白日登仙何足道	대낮에 신선이 되어 오르는 걸 말해 무엇하리
急流空羨此閑行	용퇴하는 이 한가한 행차 마냥 부럽군요.18)

여기서 퇴계는 농암을 중국의 전설적 현인인 ‘양소(소광(疏廣)과 그 조카 소수(疏受))와 비견된다’고 했다. 후일 국왕이 내린 제문도 농암을 “소광, 소수처럼 가지런히 빛난다”고 묘사했다.

皤皤大老	백발의 대로로서
式表朝行	조정의 모범이었는데
挽不可留	만류하여도 머물지 않고
退身桑鄉	고향으로 물러났으니
寂寞青史	역사에 적막하고 쓸쓸했으나
二疎齊光	두 소씨(소광, 소수)처럼 가지런히 빛나네19)

이성원은 이런 정황을 통해 “퇴계는 농암의 은퇴를 한 명 참판 관료의 치사(致仕)가 아닌 한 분 선생의 역사적 사건의 한 순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농암을 흔히 역사적 현인인 도연명, 하지장, 범리 등과 비교하였지만, ‘소광, 소수와 비견된다’는 최고의 찬사였다는 것이다.

께 하며 「이 참판선생가귀(李參判先生假歸)」, 「봉전이선생(奉錢李先生)」 등을 지었다.”(김언중 해제, 49~50쪽에서 인용) 『龔巖集』, 이현보 지음, 장재호·김우동 옮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번역총서, 한국국학진흥원, 2019

18) 「창녕군의 시에 차운하다(次昌寧韻)」[李滉], 『龔巖集』 卷5 /附錄二/ 퇴휴시 별첩 [退休時別帖], 『龔巖集』, 이현보 지음, 장재호·김우동 옮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번역총서, 한국국학진흥원, 2019, 437쪽.

19) 「사제문(賜祭文)(1555)」, 『龔巖集』 卷4, 附錄一, 두 소씨는 한 나라 선제 때 소광(疏廣)과 그 조카 소수(疏受)를 말하며, 소광이 소수와 함께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천자와 태자는 황금을 하사하고, 궁경대부들은 동도문 밖에서 성대하게 전별했다. (『古文眞寶後集 送楊巨源少尹序』), 『龔巖集』, 이현보 지음, 장재호·김우동 옮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번역총서, 한국국학진흥원, 2019, 340쪽.

‘양소’라 불리는 이들은 명예의 절정에서 물러나 중국 역사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이 된 자다. 중국 4대 시인 백거이(白居易)의 명시 「불치사不致仕(물러나지 않은 자)」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양소이다. 오랜 중국의 역사에도 자진해서 정계은퇴한 인물이 없었는지 길이 찬양받는 인물로 남아있다. 이성원은 여기서 또 퇴계의 ‘선생’ 표현에 주목했다. 지금 흔한 것이 선생이지만, 당시까지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퇴계가 씬으로 말미암아 역사상 부각된 용어라는 것이다. 신라시대는 ‘백결선생’, ‘강수선생’ 정도 쓰였으며, 고려시대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조선시대는 양촌 권근이 목은 이색에게 ‘선생’이라 했고, 서거정을 ‘사가선생’이라 한 것 정도였다. 이후 퇴계 시대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사어에 가까웠는데, 퇴계가 문득 농암을 대상으로 사용했고, 퇴계가 그 표현을 일괄되게 쓴 유일한 대상 또한 농암이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 시는 제목이 그대로 「농암 이선생께 올린다(上龔巖李先生)」이다.

高臺新曲賞深秋	높은 대에 새로운 가락 깊어진 가을은 아름답고
手折黃花對白鷗	노란 국화를 손으로 꺾어 하얀 물새를 마주하네
仰德至今清夜夢	지금까지 경모하는 은덕은 밤 꿈 속에 선명하고
月明時復到中洲	밝은 달은 때 맞추어 다시금 물가 사이에 이르네. ²⁰⁾

또 퇴계는 1556년 「농암이선생행장」을 지었다. 자칭해서 쓴 농암 일대기이며, 후에 정암 조광조, 회재 이언적의 일대기를 그 아들들의 요청으로 짓고 ‘선생’이라 칭한다. 「정암조선생행장」(1564), 「회재이선생행장」(1566)등이 그것이다. 그 무렵 사림집단의 사회적인 최고 존칭은

20) 「上龔巖李先生」, 『退溪先生文集卷之一』

‘공’이었는데 왜 퇴계는 ‘선생’을 새삼스럽게 사용했을까? 이 단순한 질문을 여태껏 그 누구도 제기한 사람 없었고, 그 누구도 답변한 사람이 없었음을 이성원은 도리어 궁금해한다. 이성원은 “『퇴계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을 세었는데, 91회 조목이 1위였고, 이현보가 77회로 다음으로 많았다. 기대승이 62회, 황준량이 56회로 그 다음이다.”며 “농암에 대한 퇴계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퇴계의 ‘선생’ 칭호는 우리에게, 아니 우리 민족에게 영원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고 본다. ‘선생’은 그 후 한국에서는 너무나 보편적 표현으로 굳혀졌다. 퇴계가 ‘퇴계선생’이 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퇴계의 ‘서원창건운동’과 ‘선생개념확립’은 이렇게 퇴계가 의도한 바에 따른 것이며 지금 그 염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²¹⁾

5. 선의 구획과 선의 넘나듦: 한국적 선비의 역동성

농암은 살아생전 ‘소주도병(燒酒陶甁)’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 말은 모순어법이다. 겉모습은 질그릇 병처럼 검고 투박하지만 내면은 소주처럼 맑고 엄격하다는 의미였다. 겉은 소탈하지만 속은 맑은 총의가 가득했다. 이는 한국 미(美)의 모순적 특성을 잘 드러낸다. 서양에서 소크라테스 역시 자주 사투로스에 비교됐다. 겉모습은 투박하고 못생겼으나, 속은 지혜로 가득한 것을 말한다.²²⁾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처음 들 때는 매우 이상하고, 우스워 보이지만 그 속을 열어젖히고 들어가 보면

21) 이성원(2020), 『퇴계에게 제자, 선생, 교육, 학교는 무엇인가』,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65~67쪽.

22) 플라톤의 『향연』(천병희 번역 플라톤전집 1권)의 한 대화에서 제자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의 외모를 사투로스(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半人半獸]의 괴물)로 비유한다.

신적인 지성과 덕을 느낄 수 있다는 뜻도 담고 있다. 농암도 비슷했다. 그의 강호가도는 굉장히 질박하고 투박해 보이나, 그 안을 열고 들어가면 겹겹의 풍류와 리(理)를 향한 동경을 맛볼 수 있다. 바람이 그 겹 사이를 오고가는 것이 풍류였다. 오고감이 가능한 이유는 사이가 떨어져 있어서이다. 사이가 좋으려면 사이와 간격이 확보돼야 한다.

농암 이후 강호가도의 안동지역은 장수마을이 되었다. 이성원은 “유상곡수는 조선 최고의 레저였다”고 강조한다. 안동의 분강촌은 말하자면 당시 한국의 ‘블루존(100세 이상이 사는 마을)’이었다. 목릉성세의 절정을 이룬 선조임금 시절에 인재들은 이곳에서 장수의 여러 요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 한국은 조선 시대 사림 이후 ‘선비의 나라’라는 호칭을 갖게 됐다. 그것은 선비의 정의를 철저히 하고 단단하게 다져온 덕이다. 그리고 그 내막에는 퇴계가 ‘선생’이라 호칭하고, 그의 행장을 지어 도통을 밝힌 농암이 세운 하강하는 선비의 표상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문화사회학자 한민은 이 특징을 “선을 긋는 일본인, 선을 넘는 한국인”이라고 정의했다. 한번 그어놓은 선은 절대 넘지 않는 사회가 일본이라면, 선을 넘나드는 사회, 어찌면 선을 넘기 위해 그어놓는 게 한국이라는 것이다.²³⁾ 선은 구획돼 있으면 또 넘어가는 것이다. 선을 넘나들면서 생기는 역동성이 한국인의 에토스를 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영화 <기생충>에서는 “자꾸 선을 넘네?”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온다. 한국의 선비는 이 두 가지의 서로 모순적이고 상반된 사이를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자신의 길을 개척한다. 조선 유일의 치사, 은퇴식과 송별연을 벌였던 농암이 한국 유학사에서 기여한 일은 하강하는 선의 확립이었다. 그리고 그 하강이 있기에 또 상승이 가능해졌다. 풍류는 이 선을 넘나드는 유연

23)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 심리학의 눈으로 보는 두 나라 이야기』, 한민 지음, 부키, 2022, 263~264쪽.

성을 말한다. 조선 도학의 역동성은 농암 이후 활발해졌다. 진이모퇴의 구별과 강호가도의 성립은 그 선을 구획한 것이고, 그 선을 넘으면서 또 선을 넘을 때 진퇴식을 통해 고지함으로써 그 선의 존재 의미를 만천하에 알린 것이다. 이제 선비가 그 선을 넘는다고 할 때는 선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스스로 내면화, 체화해야 한다. 향후 더 면밀하게 밝혀야겠지만 한국인의 한에서 나오는 우수와 회한과 해학의 철학은 바로 이런 물러남의 역동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한다.

6. 결론: 항세기와 난세기의 선비정신

중국 류츠신 작가의 SF 소설 『삼체(三體)』과 동명의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는 삼체 행성의 외계인들이 항세기와 난세기를 거친다. 치세와 난세를 구분하는 것이 동양철학의 모체임을 이해할 때 행성적으로 확장된 동양의 사고관을 드러내는 영리한 설정이다. 여기서는 세 개의 태양이 불규칙적으로 뜨고 지면 삼체 행성을 엄청난 온도로 가열하기도 하고 냉각시키기도 한다. 그 안에는 사는 사람들은 생존에 적합하지 않은 난세기에는 스스로를 '탈수'시켜 미라 상태로 존재하다가 적절한 기온이 유지되는 항세기에 '입수'를 통해 되살아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듯 생존과 문명의 지속적인 발달에 부적합한 삼체 세계의 척박한 자연 조건은, 삼체인들이 자신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항성계에서 지구의 존재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정복하도록 하는 욕망을 부추기게 한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진퇴관은 인류 생존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본고에서 검토한 상승과 하강의 선이 있는 한국적 도학은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앞으로 더욱 큰 의미를 생성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일본의 문화비평가 사이토 다카시는 『일류의 조건』에서 동경과 의지의 크기가 그 사람의 그릇 크기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동경하는 분야를 인지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가며 몸으로 익힌 ‘특기’를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발전시켜 나간 스타일의 총체가 바로 일류를 만든다는 것이다. 외국이 일류라고 인정한 ‘선비 정신’은 농암에게서 한 단계 진척됐다.

퇴계가 농암을 ‘선생’이라 칭하며 행장을 쓴 이유는 농암이 “리(理)를 향한 동경”이라는 도의 스타일을 확립했기 때문이었다. 농암은 물러남의 미학을 실천했던 도연명과 양소(소광, 소수)를 사표로 삼아 자신의 스타일을 개척했고, 이후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물러남의 도, 즉 엄퇴지사로서의 면모를 제시했다. 앞서 오구라 기조는 그의 책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에서 조선의 지식인에 세 개의 이미지 그룹이 있었음을 주장했음을 살폈다. 양반과 사대부, 그리고 선비의 구분이 그것이다. 야당인 사대부는 여당인 양반의 도덕을 공격한다. 이 공격이 성공하면 양반은 전복되고 사대부가 정권의 중추가 된다. 그러나 이런 사대부도 쉽게 귀족화, 보수화, 양반화된다. 이것이 유교 정치의 반복이며 역동성인데 이 소용돌이 속에서 선비는 항상 핵심 권력의 밖에 몸을 두고 이들을 모두 공격할 수 있다. 이 소용돌이 바깥에서 소용돌이를 작동하게 하는 제 3의 벡터를 만들어 낸 것이 농암이 개척한 하강적 선비정신의 의미다. 퇴계는 이 힘을 알았고, 그에게 ‘선생’ 칭호를 봉했다. 실제 전후 네 차례에 걸친 사화(1498~1545)를 모두 살아냈던 농암 이현보는 수없는 신진 사대부들이 주살되는 처참한 투쟁 속에서 ‘리’를 위축시키지 않고 역으로 불굴의 생명력을 획득해 가는 데 성공했다. 위기와 역경 속에서 ‘리’는 오히려 빛났다. 언뜻 사림들이 4대 사화를 거쳐서 박해받고, 또 그 가운데서도 도학을 성립하고 면면히 이어온 광경은 성경에서 예수의 제자들

이 각종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려는 사도행전의 기록들과 비슷한 느낌이 든다. 조선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 지켜낸 도덕은 '리'를 향한 하강, 즉 상승하는 하강이었다. 그래서 촘촘한 그물에 걸리지 않고, 넓은 강호의 리를 향했다.

〈참고문헌〉

〈원전〉

『龔巖先生文集』.

『退溪先生文集』.

이현보 지음, 장재호·김우동 옮김(2019), 『龔巖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본 역총서, 한국국학진흥원.

퇴계학연구원(2007), 『退溪先生言行錄』 卷3 類編, 154쪽.

안동문화연구원(1992), 『농암 이현보의 문학과 사상』.

余英時(1987), 『士與中國文化』, 上海人民出版社.

余英時 等著(1992), 『中國歷史轉型時期的知識分子』, 聯經出版事業公司.

강호문학연구소(2000), 『龔巖 李賢輔의 江湖文學: 강과 달과 배와 술과 시가 있는 풍경』.

〈단행본과 논문〉

이성원 저(2020), 『퇴계에게 제자, 선생, 교육, 학교는 무엇인가?』, 도산서원 선비 문화수련원.

이성원 저(2008), 『천년의 선비를 찾아서』, 푸른역사.

국립중앙박물관(2007), 『때때옷의 선비, 농암 이현보』.

최영성 지음(1995), 『한국유학사상사』 2권, 아세아문화사.

플라톤 저, 천병희 번역(2017), 『향연』(플라톤전집 1권), 도서출판 숲.

오구라 기조 지음, 조성환 옮김(2017),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모시는 사람들.

한민 지음(2022),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 심리학의 눈으로 보는 두

나라 이야기』, 부키.

사이토 다카시 지음, 정현 옮김(2024), 『일류의 조건』, 필름(feelm).

이어령 저(2022), 『너 어떻게 살래』, 파랑북.

류츠신 지음, 이현아·허유영 옮김(2020), 『삼체』, 자음과 모음.

이만열·고영주(고산) 지음(2020), 『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보물』, 북스타.

〈농암종택〉 홈페이지(<http://bungang.nongam.com/coding1/sub1/sub3.asp?bseq=2&mode=view&cat=-1&aseq=6709&page=1&sk=&sv=>),

이원진(2022), 「농암(龔巖)의 경천(敬天)사상: 聖俗間 거리두기를 위한 자연의 재발견」, 『동양철학연구』 109, 동양철학연구회.

이원진(2021), 「두 사건에서 보는 지구적 전환: 우리는 어떤 지구를 상상할 것인가」, 『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 88.

김경호(2012), 「秦·漢初 出土資料에 반영된 ‘士’·‘吏’의 性格 — 游士에서 儒士로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0.

김인호(2020), 「고려말 사대부 개념의 역사성과 정치적 분화에 대한 논의」, 『韓國思想史學』 64.

The Rule of Conduct in Life(出處觀) in Nongam Lee
 Hyeon-bo(聾巖 李賢輔)'s Poem *Bunuhang*(盆魚行):
 The Subsequent Formation of the Confucian Scholar's Image
 in Joseon Confucianism

Lee, Won-jean *

Toegyeg referred to Nongam as 'teacher(선생)' and wrote his eulogy because Nongam had established a style of Dao centered around longing for 'Li(理)'. Nongam, taking Tao Yuanming and two Shu(疏廣 and 疏受), who practiced the aesthetics of withdrawal, as his models, developed his own style and subsequently presented to Joseon Confucian scholars the path of withdrawal, that is, the image of a person who retires from the world with dignity (Yeomtoe Jisa, 恬退之士). Previously, Ogura Kijo in his book *Korea as a Philosophy* noted that there were three image groups among Joseon's intellectuals: yangban, sadaebu, and seonbi. The sadaebu, being the opposition, attack the morality of the yangban, who are in power. If this attack succeeds, the yangban are overthrown and the sadaebu become the central power. However, even the sadaebu quickly become aristocratic, conservative, and yangban-like. This cycle of Confucian politics is dynamic, and in this turmoil, the seonbi always remain outside the core power, capable of attacking both groups. The third vector, created by Nongam, is the meaning of the descending scholar spirit, which operates outside this cycle. Toegyeg recognized this *seong* and honored him with the title 'teacher(선생).'

Nongam Lee Hyeon-bo, who survived the four purges (Sahwa) that occurred from 1498 to 1545, managed to maintain and even strengthen 'Li(理)'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Convergence Science, Yonsei University /
 E-mail: jealivre@gmail.com

amid the brutal struggles that saw countless new scholars executed. In times of crisis and adversity, 'Li' shone even brighter. Observing the scholars (sarim) endure the four major purges, suffering persecution yet continuing to develop and uphold Confucian principles, is reminiscent of the disciples in the Bible who spread the gospel despite various persecutions, as recorded in the Acts of the Apostles. The morality that the sarim protected in Joseon history by fleeing persecution was a descent towards 'Li', which is an ascending descent. It aimed at the broad Mountain-Water Poetry(江湖歌道) without being caught in a dense net.

Key Words

Nongam Lee Hyeon-bo(聳巖 李賢輔), poem Bunuhang(盆魚行), seonbi(the Joseon Confucian scholar), The descent towards Li(理), Mountain-Water Poetry(江湖歌道), The retirement from the world with dignity(恬退之士)

논문접수일: 2024.5.25., 심사완료일: 2024.6.18., 게재확정일: 2024.6.18.